"쉿!" 학교는 알고 있었다 여고생들 동반자살 징후를

고위험군 분류 하고도 전문가 상담 안해…당일 결석에도 방관

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메뉴얼 있지만 적용 안 돼

광주시교육청에선 사건 전해듣고도 오락공연 시민들 "이럴수가" 분통

지난 3일 여고생 2명 동반자살 사건과 관련해 자살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이를 막지 못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숨진 한 학생의 경우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전문가 상담을 하지 않았고, 당일에는 결석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동반자살한 광주 한 특성화고 1년 C(16)양은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징후가 뚜렸했다. 학교도 이 사실을 알고 담임교사가 12차례 상담하는 등 특별관리 했지만 자살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이날은 C양이 결석했지만 학교 측은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었던 C양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전문상담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임과 상담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5일 "학교나 교육청에 문제점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작년에 위기관리 학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보냈지만 적용이 안된 것같다"며 "사전·사후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고 생명존중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실'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들어갔다면 꽃다운 나이에 생을 접을 일은 막을 수 있었다"며 "시교육청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통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동반자살 사건이 전해진 4일 교육청 내에서 오락성 공연을 진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조회를 했다. 행사에서는 중학생들의 '두드림 북' 공연과 우수공무원 표창, '오! 해피데이 추첨', 학교문화 혁신 종합계획 설명회 등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은 여고생 2명이 신병을 비관해 동반자살한 소식이 전해지고 한 고교생은 교통사고로 숨져 발인이 이뤄진 날이었다.

정희곤 광주시의원은 "지난 4일은 여고생 2명이 자살하고 고등학생 한 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발인을 하던 날임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행사를 취소하고 자살예방 시스템을 긴급 점검해야 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날 오전에 북 공연을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북 공연은 학교 부적응 위기에 처한 학생들로 구성돼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오!해피데이 추첨도 교육청 간부와 직원들의 소통을 위한 식사 등의 모임을 정하는 것으로 매년 6회씩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급 공무원의 '끗발'

음주운전 사고 뒤 순찰차 보고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 출석 … 검찰, 불기소 면죄부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난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청 5급 공무원 장모씨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는 지난 3월5일 밤 11시30분께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사고처리 방안을 논의하다가 파출소 순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튿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이미 술을 마신지 10시간 이상이 지나 혈중알콜농도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장씨는 경찰에서 "조금 마셨을 뿐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사고 당일 장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술을 마신 주점까지 찾아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당시 술집 주인과 함께 마신 지인들은 "모른다"거나 "(장씨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결국 처벌 기준 이상의 음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씨가 현장을 떠난 점에 주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 관련 규정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사고로 인한 비산물(파편)도 없었고 피해자가 추격도 하지 않아 도로상의 혼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 후 미조치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이같은 목포지청의 결정에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나운찬 〈8832〉 김종두

기름유출 화물선 기관장 체포

목포해경은 5일 기름을 유출한 후 도주한 목포선적 4900t급 화물선 S호의 기관장 한모(69)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목포항 내 영암 용당부두에서 기름을 주입하던 중 연료인 벙커C유(중질유) 50ℓ를 유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탈북 20대 남녀 동반자살 시도

광주 한 모텔에서 … 생명엔 지장 없어

광주 한 모텔에서 탈북자인 20대 남녀가 동반자살을 시도,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5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N모텔 2층 객실 침대에서 권모(29)씨·임모(여·22)씨 등 2명이 구토를 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 북부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전남대와 조선대학교병원으로 각각 이송된 뒤 의식을 회복, 광주 현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 어머니의 지인은 경찰에서 "딸이 가출한 뒤 N모텔에 있는 것 같다는 임씨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N모텔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들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권씨와 임씨 주소지는 각각 서울과 경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가 아닌, 광주까지 와 자살을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막말 동영상 고교생 2명 처벌 면했다

피해자 가족들 선처 호소

순천경찰은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인 할머니들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순천 제일고생 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데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하도록 돼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5일 오전 10시께 광주고등법원 청사 앞 보행로에서 김모(54)씨가 화물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분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영업정보를 빼돌려 경쟁업체를 차렸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에서 분신투쟁 꽃집 아저씨는 왜?

광주동부경찰은 5일 광주법원 안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꽃집 주인 김모(4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꽃집서 일한 경찰관 아내가 고객정보 빼돌려 피해 주장 2000만 원 손배소 기각되자 "해당 경찰관 데려와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광주고등법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 자신의 1t 화물차를 주차한 뒤 짐칸에 올라타 휘발유 10ℓ 가량이 든 생수병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꽃가게에서 일하던 현직 경찰관 아내가 고객정보 등을 빼돌려 피해를 봤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해당 경찰관과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뒤 해당 경찰관을 정복을 입혀 데려올 것을 요구하며 1시간30분 가량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근 경찰관 부인이 (내 꽃 가게에서) 20m 떨어진 곳에 꽃집을 냈는데, 7년간 모아온 거래처 명함이 모두 없어졌다"며 "영업 노하우·고객 정보 등을 빼돌리는 바람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광주법원 내에서 청사 관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운 점을 감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견물생심' 친구 지갑 훔친 할머니

쌍나팔

○…친구가 등을 돌리고 부엌일을 하는 사이 거실 탁자에 있던 지갑을 훔쳐간 60대 여성이 경찰서행.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69)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양림동 모 아파트에 사는 친구 김모(여·68)씨의 거실에서 현금 30만 원이 든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친구집에 놀러간 이씨는 김씨가 거실에서 일을 하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든 지갑이 보이자, 순간 마음이 동했다"며 뒤늦은 후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